栗谷 李珥의 실천지향적 道學정신과 교육정책

이천승

한국 성균관대학교

1. □□

남송 시대 새로운 사회문화를 선도했던 주자학자들은 '道學'이라는 美名아래 한때는 '僞學'으로 분류되는 위험한 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중앙정부의 권력화보다는 새로운 교육을 통해 지방의 자발적 공동체를 선도하려는 실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朝廷에서 신유학의 견해를 수용하고 때로는 제도적으로 편입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필요했다.[172] 유학의 진리를 당대의 현실에서 제대로 실현하려는 도학자들의 급진적인 개혁의 기치는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왕권과 밀착된 官學派(혹은 勳舊派)들의 제도와 힘을 앞세운 논리는, 공정한 사회란 자발적 도덕심에 기반해야 한다고 확신하는 士林派와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다.

조선의 유교화 과정에서 관학파와 사림파의 극심한 갈등과 대립은 16세기 무렵 사림파들이 대거 숙청되는 네 차례의 '士禍'를 거쳤고, 이후 정권을 주도하게 된 사림내부의 갈등인 '黨爭'의 시기를 거친다. 사화의 직간접적 영향아래 있었던 退溪 李滉(1501～1570)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 주목하게 될 栗谷 李珥

[172] Peter K. Bol著, 김영민옮김,『역사 속의 성리학』, 예문서원, 2010, p27.

(1536～1584)는 사림파 내부의 이론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시대에 활동했다. 학자이자 관료였던 율곡은 '도학'의 실천정신으로 당대를 유교적 이상사회로 탈바꿈하려는 강인한 의지로 충만하였다. 도덕적 자기성찰에 기반한 사회적 실천 노력을 '道學'으로 이념화시킨 것은 율곡이었지만, 이러한 정신은 그가 존중하였던 16세기 靜庵 趙光祖 이래 士林들에게 각인된 정신적 유산이었다. 그들이 지향했던 修己와 治人의 정신은 유학자라면 충분히 공유하던 가치였지만, 시대적 상황이나 개인적 성향에 따른 운용의 차이를 보인다.

율곡은 중앙정계의 고위 관료로서 정치일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경험을 토대로 능력을 갖춘 사림들의 정계활동을 적극적으로 긍정했다. 그는 유교(성리학)적 질서 확립을 위해 도덕적 마음의 수양 이외에도 사회제도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을 강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이처럼 사회제도와 운영을 중시했던 그의 생각이 조선초기 관학파들이 제도에만 만족하고 점차 배타적 권위주의에 빠져들었던 부정적 현상을 망각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렇다고 국정운영의 통치기술이나 구체적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림파들의 한계까지 수용하지는 않는다. 합리적 제도의 보완과 더불어 도덕성을 겸비한 실천적 자세는 常經과 더불어 '變通'에 대한 狀況主義的 志向[173]으로 이어진다.

이 논문에서는 敎化를 민생안정과 더불어 王道政治의 중요한 축으로 여겼던 유학자들의 관심을 고려하여, 율곡의 교육정책을 통해 본 도학자의 실천 지향적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율곡은 「學校模範」 등에서 수기치인을 관통하는 근원적 힘을 교육에서 찾고 선비들의 기상을 변화시켜는, 즉 '丕變士風'을 지향하는 교육정책을 제시한다. 당면한 교육의 폐해에 대한 진단과 지향의 방향 그리고 그에 대한 율곡의 구체적인 대안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었다.

일반적으로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도학자들은 書院중심의 私學을 선호한다. 서원은 과거시험을 위한 과정보다는 도덕수양과 도통에 대한 자율적 계승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율곡의 교육정책은 서원이나 精舍뿐아니라 국가에서 전국에 동일하게 표준으로 제시되는 官學의 제도적 개선에 포괄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기수양을 위한 교육이 과거시험 준비 과정에 반드시 방해를 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사림들은 주자학을 기반으로 하는 공통분모가 있었으나 정부주도의 관학과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학의 교과목표와 행정체계는 지역이나 운영주체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동반할 수 있다. 공교육

[173] 朴忠錫, 『韓國政治思想史』, 三英社, 1982, pp44～45.

의 정상화를 위한 토대로서 도학을 앞세운 율곡의 실천적 자세를 통해 자아와 타자가 공존하는 공동선의 추구가 부재한 오늘의 교육현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먼저 율곡이 교육을 포함한 모든 국가 사회정책의 토대로 삼은 도학의 실천적 정신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율곡의 실천적 도학정신과 □□의 사회적 책무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주자학 혹은 성리학으로 일컬어지는 주자 및 그와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상가들을 『宋史』에는 '道學'의 범주에 수록하고 있다. '儒林傳'과는 다른 분류의 한 틀로서 '도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도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측면에서 주자학은 도학이란 명칭을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아울러 理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理學'이라 말하고, 성즉리라는 명제로 리기론과 인성론을 통일했기 때문에 '性理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대에는 도학을 古代 성현들의 사상을 계승하여 유학의 진리를 부흥하거나 전승하려는 특별한 목적을 지닌 학자라는 비판이 있었다. 즉 주희의 반대자들에 의해 도학이란 조정을 전복하려는 '僞學'의 위험인물들로 간주되었다.[174] 그 대표자였던 주자가 서거하던 1200년만 해도 여전히 조정을 위학의 의심을 풀지 않았다. 1212년에 이르러서야 관학에서 학생들에게 『논어』『맹자』에 대한 주자의 주석을 가르치는 것을 허락했다. 그리고 1241년에 이르러 조정은 왕안석 대신에 주자를 孔廟에 모시는 것을 허락하는 과정을 겪는다.[175]

도학이란 이론과 실천을 병행하는 용어다. 도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던 인물들의 계통을 따라 당면한 현실에서 그들의 삶을 자세를 본받고 실현하려는 것이다. 율곡의 대표저서인 『聖學輯要』의 마지막인 '聖賢道統'편에는 중국뿐 아니

---

[174] 田浩 著, 姜長蘇 譯, 『功利主義儒家: 陳亮對朱熹的挑戰』, 江蘇人民出版社, 2012. "雖然『宋史』用'道學'來表彰朱熹及有關思想家, 而中國這一時期的第一部斷代學術史『宋元學案』却批評了'道學'一詞的隨意和武斷."

[175] Peter K. Bol著, 김영민옮김, 『Neo-Confucianism in history (역사 속의 성리학)』, 예문서원, 2010, pp349~352. 이러한 조정의 수용과 인식의 변화는 士에 대한 도덕중심의 교육과 이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사회의 여건을 개선하려는 신유학의 점차적인 성공을 의미한다.

라 조선의 도통론에 대한 개괄적인 흐름이 수록되어 있다.[176] 즉 鄭夢周 → 金宏弼(1431～1492) → 趙光祖(1482～1519)로 이어지는 도통의 계보가 그것이다.

> **我國理學無傳, 前朝鄭夢周始發其端, 而規矩不精, 我朝金宏弼接其緖, 而猶未大著. 及光祖倡道, 學者翕然推尊之, 今之知有性理之學者, 光祖之力也.[177]**

율곡은 도학의 계보에서 고려말엽의 圃隱 鄭夢周를 리학을 발단시키고 유학자의 기상을 지닌 인물로 평가하기는 하지만, 학문적 성취가 부족하므로 충신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178] 또한 그는 嶺南지역을 중심으로 성리학의 사회적 운동을 통한 사림파의 태두로 부상한 佔畢齋 金宗直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의 문인으로 『小學』을 특별히 강조했던 寒暄堂 金宏弼에 주목한다. 한훤당은 성리학적 규범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實踐躬行을 중시했던 초기 사림파의 인물로 정암 조광조로 이어지는 도통의 직접적 맥락을 중시한 듯 하다.

왕도정치의 구현, 즉 至治의 실현에 헌신했던 정암에 대한 율곡의 관심은 지대하다. 정암으로 대표되는 신진사대부들의 중앙정계 등장은 순정유학의 사회적 실천에 초점을 두었다. 사회전반에 비성리학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급격히 추진되었던 신진사대부들의 賢良科 설치를 비롯한 각종 정책들은 관학파의 반격으로 일시에 몰락하게 된다. 훗날 己卯士林으로 일컫어지는 이들의 자기희생은 성리학적 개혁운동의 퇴보와 지식인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그들의 성리학에 기반을 둔 사회개혁정신은 16세기 중반이후 士林派의 부활로 새롭게 부각된다. 동시에 개혁주체인 사림들의 성리학에 대한 학문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는 퇴계나 율곡처럼 성리학에 대한 심화된 연구의 축적으로 이어졌다. 율곡은 정암의 경세치용에 철저하지 못한 점과 점진적이지 못한 과격한 성격을 실패의 원인으로 파악한다.[179] 이는 격화되는 黨爭의 조화

---

[176] 율곡의 도통론과 관련된 논의는 이동준의 「율곡의 사회사상과 도학정신」(『율곡사상연구』 19집, 율곡학회, 2009)와 리기용의 「율곡의 도학과 사회개혁」(『율곡사상연구』 21집, 율곡학회, 2010) 참조.

[177] 『栗谷全書』 28卷‘ 經筵日記’.

[178] 『栗谷全書』 권15, 「東湖問答」‘論東方道學不行’. “麗末, 鄭夢周稍有儒者氣象, 亦未能成就其學, 迹其行事, 不過爲忠臣而已.” 참고로 「동호문답」은 율곡이 1569년 34세의 나이에 賜暇讀書를 이용하여 작성한 국정개혁에 관한 보고서이다.

[179] 위와 같은 책, ‘論我朝古道不復’. “惜! 夫光祖之出也太早, 致用之學, 尙未大成. 共事之人, 固多忠賢而好名之士未免雜進. 論議太銳, 作事無漸, 不以格君爲本, 徒以文具爲先.”

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경세치용을 위한 합리적 방안으로 국가의 공적 기구를 이용한 제도적 보완에 치중하게 되는 소중한 경험으로 이어진다. 또한 율곡이 도학의 계보도에서 퇴계를 거론하지 않은 점도 특이하다. 이러한 시각은 經世濟民의 실천능력까지 도학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그 실현주체에 대한 유자의 사명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율곡은 왕도정치가 현실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도학에 밝지 못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데서 원인을 찾으며, 다음과 같이 도학에 대해 정의한다.

> **夫道學者, 格致以明乎善, 誠正以修其身, 蘊諸躬則爲天德, 施之政則爲王道. 彼讀書者, 格致中一事耳. 讀書而無實踐者, 何異於鸚鵡之能言耶? 如梁元帝讀書萬卷, 竟爲魏俘, 此亦可謂道學乎?**[180]

율곡은 도학이란 수기를 위한 격물과 성의정심의 자세를 배양하고, 그러한 마음가짐을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시켜 가는 것이라 말한다. 즉 수기와 치인의 두 영역이 포괄된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는 단순히 독서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상황에 따른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독서란 단지 모방에 불과할 따름이다. 율곡은 말한다. "擇其窮理正心, 以道出處者, 目之以道學."[181] 또한 그는 정확히 알고 현실에서 실천하려는 자세를 겸비한 인물, 즉 도학하는 선비를 '眞儒'라고 말한다.

> **夫所謂眞儒者, 進則行道於一時, 使斯民有熙皞之樂; 退則垂敎於萬世, 使學者得大寐之醒. 進而無道可行, 退而無敎可垂, 則雖謂之眞儒, 吾不信也.**[182]

율곡은 수기와 치인을 실천하는 진정한 유자, 곧 眞儒야 말로 진정으로 도학

---

[180] 『栗谷全書』 권15, 「東湖問答」 '論君臣相得之難'. 또한 道學이 형식화된 명목으로 전락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道學之名非古也. 古之爲士者, 入則孝, 出則弟, 仕則以道事君, 不合則奉身而退. 如此者謂之善, 不如此者謂之惡, 不以道學別立名目. 及其世降道衰, 聖賢之統不傳, 惡者固不足道矣, 雖所謂善者, 亦徒知孝友忠信, 而不知進退之義性情之蘊, 往往行不著習不察. 於是, 擇其窮理正心, 以道出處者, 目之以道學, 道學之立名, 衰世之所不得已也. 此名旣立, 姦人或指而斥之, 反使不容於世, 吁可悲矣. 嗚呼! 道學之名, 旣出於衰世, 而世尤降俗又下, 則又以能讀經著書者, 目爲道學, 其於心性工夫, 出處大節, 有不暇恤者, 尤見世道之變也."(『栗谷全書』 권28 23판 '經筵日記'.)

[181] 『栗谷全書』 권28 「經筵日記」. "擇其窮理正心, 以道出處者, 目之以道學."

[182] 『栗谷全書』 권15, 「東湖問答」 '論東方道學不行'.

하는 선비로 보았다. 수기나 치인 특히 수기에 치중하는 것만이 유학자의 역할은 아니다. 經世濟民하려는 노력은 혼자 물러나 自守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더불어 공동체의 질서를 모색하는 兼善의 과정에 달려있다. 정치적 현실에서 물러나 자기정화에 치중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어쩔수 없이 취하는 특수한 상황이다.[183] 율곡이 퇴계의 학문과 성향을 알고 있더라도 복잡한 현실 정치에서 점차 물러나려는 태도[184]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도학의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려는 眞儒 여부의 판단기준은 실천의 힘이다. 수많은 대안이 난무하는 회의를 거듭하지만 결국 그것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실질에 힘쓰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 **終朝設食, 不得一飽, 空言無實, 豈能濟事? 今夫經席之上, 章奏之閒, 非無嘉謀讜論, 足以治國, 而未見一弊之革, 一策之施者, 只是不務實效故也. 今我主上, 必欲求治, 以復古道, 則當務實效, 不事文具. 如欲格物致知, 則或讀書而思其義理, 或臨事而思其是非, 或講論人物而辨其邪正,**[185]

務實力行의 정신은 실천을 중시하는 율곡의 사유를 잘 보여준다. 특히 율곡은 '務實'의 정신은 국가의 마음에 해당하는 군주가 지닐 수기의 요점임을 강조한다.[186] 율곡이 매사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치의 정점에 서 있는 군주의 실천적 노력을 강조한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정치뿐 아니라 교육, 문화 제반에 걸쳐 흐르는 기본적인 사유였다.

도덕적 자기수양 및 타자를 배려하는 수기와 치인의 강조는 성리학자들의 공통점이다. 그러나 율곡의 통치론에 있어서는 원리적으로 수신의 연속선에서

---

[183] 위와 같은 책, '論臣道'. "士之兼善, 固其志也, 退而自守, 夫豈本心歟? 時有遇不遇耳. 進而兼善者."

[184] 『栗谷全書』'上退溪先生'. 율곡은 이미 정신적 구심점에 서 있던 퇴계에게 漢陽에만 있어도 그 존재의 미가 뚜렷하여 관리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임을 권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진퇴의 올바른 처신에 고민하는 퇴계를 변호하기도 한다. 『栗谷全書』권28「經筵日記」. "禮曹判書李滉, 解官歸鄉. 滉累辭以病, 乃許遞職. …… 蓋滉學問精詳, 人以大儒目之, 望其輔幼主致太平, 而滉自謂無經濟才, 故難進易退如此."

[185] 『栗谷全書』권15,「東湖問答」'論務實爲修己之要'

[186] 위와 같은 책, '論務實爲修己之要' "如欲敎化, 則先躬行以興其仁讓, 恢公道以振其紀綱, 別淑慝以變其風俗, 勵廉恥以作其士氣, 崇道學以定其趨向? 明祀典以改其煩瀆, 以致神格于上, 民應於下, 三綱立而九疇敍, 以盡其敎化之實, 主上務實之功. 苟至於此, 則天心悅豫, 和氣充塞, 災沴消滅, 慶祥疊至矣. 嗚呼! 東方億萬年無疆之休, 其在主上之務實歟?"

치인을 인정하면서도 통치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치인 그 자체에 의미를 두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정한 조건이 구비되면, 통치자는 수신을 기다리지 않고도 치국평천하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율곡은 퇴계처럼 통치는 통치자의 수신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런 결과가 아니라,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정치적 실천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다.[187] 물론 수신에 기반하지 않는 치인만을 적극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율곡은 불변하는 상도를 상정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古聖人旣沒, 則必有聖人者, 代莅天下, 隨時變通, 使民不窮, 而其所謂因人心本天理者, 則未嘗少變. 不變者, 天地之常經也, 變通者, 古今之通誼也.**[188]

율곡이 제시한 변통의 방식은 권모술수로 공리나 사익을 앞세우는 패도가 아니다. 천리의 내재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주어진 현실에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애초의 순선한 본래의 모습으로 기질의 변화 가능성을 적극 인정한다는 점은 변화의 주체적 결단을 강조하는 말로 이해된다. 성리학적 용어로 환언한다면 기질변화의 노력여부에 따라 인심에서 도심으로 도덕적 승화가 가능하며, 욕망에 사로잡히면 도심에서 인심으로 타락할 수도 있다.[189] 이처럼 변화의 흐름 속에 인심과 도심은 맞물려있기에 도심으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기치인의 노력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런데 수기에 만족하지 않고 치인으로까지 연결하려는 의지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家和萬事興처럼 수기와 치인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일까? 교육은 자신뿐 아니라 타자를 배려하고 공감하는 사회성과 도덕성을 배양하는 원천이다. 유학에서 민생과 더불어 또 다른 중심축에 교화를 중시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3. '□□□□'를 위한 □□의 교육정책

---

187 朴忠錫, 『韓國政治思想史』, 三英社, 1982, p44.

188 『栗谷全書』 권26 「聖學輯要」.

189 『栗谷全書』 권10 '答成浩原'. "人心道心, 俱是氣發, 而氣有順乎本然之理者, 則氣亦是本然之氣也. 故理乘其本然之氣而爲道心焉; 氣有變乎本然之理者, 則亦變乎本然之氣也. 故理亦乘其所變之氣而爲人心.…… 氣之聽命與否, 皆氣之所爲也, 理則無爲也, 不可謂互有發用也."

1) 官學의 교육지침으로서『학교모범』

율곡의 교육관련 저술은 그의 대표작인『聖學輯要』이외에『擊蒙要訣』,『學校模範』,「隱屏精舍學規」,「文獻書院學規」등에 집중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라는 교육대상에 따라 군주의 학습내용을 담은『聖學輯要』, 양반 사대부 일반의 공교육을 염두에 둔『擊蒙要訣』,『學校模範』, 그리고 서원교육과 같은 私學의 측면에서 황해도에 거주할 때 작성한「隱屏精舍學規」,「隱屏精舍約束」로 구분된다. 물론 그가 34때 지은『東湖問答』처럼 현실정치의 개혁적 포부를 폭넓게 진술한 정치개혁서에서도 교육의 문제는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율곡이 서거하기 2년 전인 1582년(47세)에 대사헌으로 있을 때 작성된『學校模範』(혹은 그보다 5년 앞서 42세때 저술된『擊蒙要訣』)은 학자이자 관료로서 오랫동안 중앙정치에서 활동했던 율곡의 교육관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學校模範』은 성균관을 비롯한 사학, 향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16개의 교육조목에 이어 '擇師養士'란 규범은 三公과의 논의를 거쳐 국왕에게 올린 것으로 율곡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볼 수 없다. 즉 官學으로서의 국가교육의 大計로서 작성되었던 것이다.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 국가운영의 기본지침으로 활용된『經國大典』에는 성균관과 향교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었고, 지방에도 사학의 교육기관이 활성화되면서 주자학을 토대로 한 유학의 사회적 확산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16세 후반까지 전반적인 교육은 서울의 성균관과 사학 그리고 지방의 향교를 중심으로 하는 관학이 주도하였다. 그러나 주자학을 근간으로 하는 유학의 학습에서 구체적인 교육과정이나 교육에 관한 세부지침까지는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율곡의『學校模範』혹은 관학을 대표하는 교육지침으로 의미를 지닌다. 율곡의 교육론이 사학보다는 관학, 즉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국가교육에 보다 치중한다는 점은 사학인 서원교육을 강조

했던 퇴계의 정치관이나 학문경향과도 대별된다.[190]

『學校模範』의 구성과 구체적 내용은 이미 교육학, 역사, 철학 등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으므로 논의의 전개 차원에서 약술하기로 하겠다. 특히 김경호교수의 「학교모범에 나타난 율곡의 교육사상」에서는 『학교모범』의 주요내용 및 오늘날의 교육철학적인 관점에서 교육이념,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상벌규정 등의 의미를 자세히 정리하고 있어 참조할만하다.[191]

율곡이 『學校模範』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교육(저술)의 목적, 즉 교화의 담당자인 사도의 역할을 각성시키고 士風의 진작을 말한다.

> **天生蒸民, 有物有則, 秉彝懿德, 人孰不稟! 只緣師道廢絶, 敎化不明, 無以振起作成. 故士習偸薄, 良心梏亡, 只尙浮名, 不務實行, 以致上之朝廷乏士, 天職多曠, 下之風俗日敗, 倫紀斁喪, 念及于此, 誠可寒心. 今將一洗舊染, 丕變士風, 旣盡擇士敎誨之道, 而略倣聖賢謨訓, 撰成 『學校模範』 , 使多士以爲飭躬制事之規 凡十六條, 爲弟子者, 固當遵行, 而爲師者, 尤宜先以此正厥身, 以盡表率之道.(『栗谷全書』 권15, 「學校模範」)**

율곡의 교육철학은 인성의 보편적 순선함에서 출발한다. 하늘로부터 품부받은 훌륭한 덕성의 소유자인 인간다움을 각성시키는 교화의 노력은 교육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의 직접적 책임은 올바른 스승의 길에서 찾는다. 師道가 제대로 서지 못하여 士習이 투박해지고 虛名만 일삼을 뿐 실제적인 일에 힘쓰지 않는 폐습으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피교육자의 교화를 위해서는 먼저 문제의 출발점으로서 스승의 역할이 강조된다. “제자된 자는 마땅히 성현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지만, 스승된 자는 더욱 마땅히 먼저 그 자신을 올바르게 하여 사표로서 솔선수범하는 도리를 다해야 한다.” 아울러 훈도

---

[190] 정호훈의 「16세기말 율곡 이이의 교육론」(『한국사상사학』 25집, 2005.)에 의하면 중앙과 지방의 정치적 사고차이가 퇴계와 율곡의 교육관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퇴계는 철저히 지방적 사고를 지녔으며 향촌 사대부의 자율적인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또 성리학의 학습과 전수의 공간으로서도 향교보다는 서원을 더 중시하는 면모가 강했다. 반면에 율곡의 경우는 중앙 집권적 사고를 강하게 지녔으며 公權의 힘을 보다 중시하는 성향을 지녔다. 물론 율곡 역시 향촌 사대부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그 자율성은 공권을 통하여 수렴되고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여기는 측면이 강했다.

[191] 김경호, 「학교모범에 나타난 율곡의 교육사상: 교육이념과 내용을 중심으로」, 『율곡사상연구』 6집, 율곡학회, 2003.

를 담당할 스승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제시한다.[192] 빈곤하고 기근을 모면하지 못할 정도의 훈도자들에게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는 그에 걸맞는 합리적 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는 율곡의 소신이 교육의 현장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율곡은 스승과 제자의 상호역할, 특히 교육을 선도하는 스승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러한 구도는 그의 현실 정치개혁서인『東湖問答』[193]에서도 먼저 治世를 위한 군주의 길을 논하고, 신하의 길을 말한 다음 군신이 서로 만나기 어려움을 말하는 것과 같은 구도이다. 군주 혹은 신하 어느 한편만의 독주가 아닌 합일의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군신의 공동책임론이 강조된 것처럼, 교육에 있어서도 사제의 관계는 어느 한 편으로 치중되지 않는다. 오히려 師表로서 스승의 자질에 더욱 주목하기도 한다.

총 16조로 구성된『학교모범』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94]

- 立志: 학자는 먼저 성인이 되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는데 목표를 둠
- 檢身: 舊習을 버리고 九容의 자세로 검속하여 일상에서 예의에 맞는 생활
- 讀書: 단계적인 독서로 강학하면서 도덕적 심성을 배양
- 愼言: 학문에 도움이 되는 성실하고 신중한 언어습관
- 存心: 물욕에 유혹받지 않는 본래의 도덕적 마음의 발현에 주목
- 事親: 모든 행위의 근본으로서 효도의 일상적 실천에 노력
- 事師: 진리의 전수자로서 스승에 대한 진심어린 공경의 마음가짐
- 擇友: 輔仁의 동반자로서 벗들과 사귐에 勸勉하고 信義를 다함
- 居家; 가정의 화목을 통한 正家의 노력
- 接人: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주며 좋은 풍속의 진작에 노력
- 應擧: 道學을 추구하더라도 忠君報國의 자세라면 과거도 無妨
- 守義: 義와 利를 구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음

192『栗谷全書』권15,「東湖問答」.“今者, 以訓導爲至賤之任, 必得貧困無資者而授其位, 使免其飢寒, 爲訓導者, 亦徒知侵漁校生以自肥而已. 夫孰知敎誨之爲何事耶? 如是而欲望作成人才, 何異於緣木而求魚耶?”또한 스승으로서 정신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세심한 배려도 아끼지 않는다.“使命之行, 待之以禮, 不入鄉校, 則不使祗迎. 除儒生試講之外, 凡公會竝不來叅, 使訓導持身自重, 勉勵學者. 然後每年監司親臨, 考其成績. 但試儒生, 不試訓導.(위와 같은 글)

193 이이 저, 안외순 옮김,『동호문답』, 책세상, 2013 참조.

194『栗谷全書』권15,「學校模範」33～43쪽 참조.

- 尙忠: 충실한 마음으로 의리를 정립하고 예학을 통해 忠厚한 기질을 배양
- 篤敬: 독실하고 공경한 자세로 實學을 추구
- 居學: 學宮(成均館)에서의 성실한 생활자세
- 讀法: 매월 朔望에 學堂에 모여『학교모범』등을 강론하고 반성함

큰 틀에서 본다면 立志에서 篤敬까지 14조목은 공부하는 마음자세와 구체적인 내용을 말했다면, 마지막 두 조목인 居學과 讀法은 학교 운영에 해당한다. 즉 전반부는 개인의 수신에서부터 가정이나 이웃으로 확대되는 윤리적 실천, 과거응시나 사회정의의 구현 등 학자로서의 공부자세가 제시되어 있다. 특히 정부관료의 출발지였던 과거공부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점이다. 修身-齊家-治國의 사회윤리적 확장구도가 교육의 이념으로서 구체적으로 표방된 것이다. 그리고 후반부는 학교운영을 위한 제도적 규범을 덧붙였으며, 부록형태로 '擇師養士之規'를 첨가하면서 보다 구체화시킨다. 이는 官學으로서 教育行政의 체계화를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10개의 細目으로 구성되어 있다.[195]

- 학문과 덕행에 있어서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을 추천하고 필요인원을 선정
- 校官으로 師表가 될 教授나 訓導의 자격기준
- 교관의 특별 채용기준이나 일반적인 채용기준
- 교관의 채용기준 보완
- 채용된 교수에 대한 예의와 급여기준
- 입학절차에 따른 학생선발과 학교생활
- 정원, 급식 등 학사운영에 관한 제반문제
-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
- 중앙의 각급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
- 과거응시 자격 여부에 대한 심사

율곡이 "교사의 채용과 학생교육의 규정"이라고 밝혔듯이 학교행정의 세목 가운데 전반부 5개조목은 교수임용 및 운용, 그리고 후반부 5개 조목은 피교육자로서 학생들의 학사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이러한 학교행정의 세부지침을 통해서 官學으로서 학교교육의 체계화와 公教育의 정상화[196]를 도모하려는 율곡

[195] 趙南國,「栗谷 學校模範의 構造와 哲學的 性格」,『국민윤리연구』22집,

[196] 정호훈,「16세기말 율곡 이이의 교육론」,『한국사상사학』25집, 2005.

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율곡은 공부하는 마음자세와 학교행정 등 교육일반을 포함한 전반적 교육정책을 제시한다. 그 중 '立志'는 교육과 관련된 율곡의 모든 주장[197]에서 항상 첫부분을 차지하며, 『학교모범』의 내용이 가장 구체적이다.

> **(一曰立志) 謂學者先須立志, 以道自任. 道非高遠, 人自不行. 萬善備我, 不待他求, 莫更遲疑等待, 莫更畏難趦趄, 直以爲天地立心, 爲生民立極, 爲往聖繼絶學, 爲萬世開太平爲標的. 退託自畫之念, 姑息自恕之習, 不可毫髮萌於胸次。至於毁譽榮辱利害禍福, 一切不動其心, 奮發策勵, 必要作聖人而後已.**

율곡의 교육과 관련된 저서에서 입지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 교육이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바람직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끝없는 열정은 단순히 많은 독서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유학, 특히 성리학자들에게 있어 공부란 천지나 백성, 그리고 만세의 태평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이었다. 이러한 정신은 도의 실천을 자임하는 학자의 자부심이자 사명감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공부는 당면한 일상이 실천무대였으므로 율곡으로서는 관학이나 사학이냐의 구분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2) 私學을 통한 자기수양

율곡의 관학을 통한 인재양성과 교육행정의 제도적 보완은 유교적 이상사회를 위한 실제적 마음가짐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정신은 공식적인 국가교육기관인 관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고, 「隱屛精舍學規」, 「文獻書院學規」 등 사학의 안정을 위한 학규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율곡은 이미 도덕정치를 지향하는 士林이 정치운영의 주체세력이 되었기에 학교교육에서 관학이나 사학 사이의 특별한 구분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사학은 관학과 비교한다면 자발적인 도덕심 배양을 위한 장소라는 성격이 컸다는 점에서 몇가지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97] 율곡의 대중적 교양서인 『擊蒙要訣』의 첫부분 역시 立志의 소중함에서 출발한다. "初學, 先須立志, 必以聖人自期, 不可有一毫自小退託之念. 蓋衆人與聖人, 其本性則一也, 雖氣質不能無淸濁粹駁之異, 而苟能眞知實踐去其舊染, 而復其性初, 則不增毫末, 而萬善具足矣. 衆人豈可不以聖人自期乎?"

o 입재자격은 학문에 뜻을 둔 자라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모두 허용
o 내부기율을 위해 堂長·掌議·有司·直月등을 두고 조직적으로 운용
(서원의 경우, 掌議과 院監 각 2인을 둠)
o 朔望이면 齋生들이 모여 문묘에 분향재배
o 의식주 및 주변정리 등 일상 생활에서의 실천윤리
o 올바른 언어습관이나 인간관계 충실하면서 학문에 전념
o 정규적으로 학규를 검토하고 규칙을 어겼을 경우 퇴출의 조건 제시

율곡이 제시한 교육이 목표나 내용 등은 주자의 '白鹿洞書院'의 學規와 본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주자의 시대는 오랫동안 폐허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서원의 복원[198]을 위한 시작이었다면, 율곡의 경우는 사림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활발하여 당파적 이해차이가 점차 노골화되던 시대였다. 율곡의 제시한 서원의 학규는 관학과는 달리 스승의 조건이나 대우 등이 명시되지 않고 도덕적 생활을 위한 개략적인 틀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올바른 몸가짐을 위한 자세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예를 들어 "作字必楷正, 毋得亂書, 且不得書于壁上及窓戶." 그렇다고 율곡이 사학이란 자기수양이나 올바른 몸가짐에만 충실할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율곡이 精舍에서 공부하는 학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故讀書講論者, 欲明義理, 而此心不定, 則義理難見. 故以主靜爲本, 無事時靜坐澄心者, 尊德性之事也; 有事時講明是非者, 道問學之事也. 此二者, 是終身事功, 闕一則不可. 誠能志大心篤, 尋箇是處行之, 則終日云爲, 皆是道理, 雖做科業, 亦與運水搬柴, 一般妙用. 若無此實心, 則終日云爲, 皆是俗事, 久久安得不爲俗人乎?[199]

덕성을 높이고 학문을 연마하는 두 가지 틀은 학자가 밟아야 될 평생의 숙제이다. 율곡은 목표를 원대하게 갖고 독실한 마음으로 매진하는 학문이 실학이요, 그러한 실심에서 삶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과거공부 역시 그러한 공부 과정의 일부일 따름이라고 보았다.

---

198 주자는 폐허화된 강서 南康의 백록동서원을 1180년에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게시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여기서 유교 텍스트의 인용문을 활용하여 학문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 원리를 정의하였다. 그 원리는 학문의 주제, 방법, 실천이 결합된 것이었다.(『朱子大全』 권74, 「白鹿洞書院揭示」 참조)

199 『栗谷全書』 권15 48판 '示精舍學徒'.

이 외에도 율곡은 공부하는 학인들의 자세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지녀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擊蒙要訣』10조목을 통해 제시한다. ‘입지(立志)’, ‘혁구습(革舊習)’, ‘지신(持身)’, ‘독서(讀書)’, ‘사친(事親)’, ‘상제(喪祭)’, ‘제례(祭禮)’, ‘거가(居家)’, ‘접인(接人)’, ‘처세(處世)’로 각 장의 주요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성인의 마음을 담은 확고한 뜻을 세우라.
- 학문에 방해되는 잘못된 습관을 혁파하라.
-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몸가짐을 갖도록 하라.
- 유가경전을 엽등하지 말고 끝없이 독서하라.
- 부모 섬김에 몸과 마음의 정성을 다하라.
- 부모의 초상을 예법에 따라 실행하라.
- 공경과 정성스런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라.
- 집안의 모든 일처리에 신중히 처리하라.
- 자기성찰의 자세로 사람들과 마주하라.
- 출세에 조급하지 말고 내실을 기하라.

율곡이 제시한 10가지 교육지침은 조선판 10계명인 셈이다. 평소 기질변화를 강조하는 그만의 독특성이 언뜻 보이기도 하지만, 유학적 소양을 지닌 지식인들이 지녀야 될 바람직한 몸가짐과 마음자세를 예시한 것이다. 율곡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복 가능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자신의 인격과 행위를 도야함으로써 자기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율곡은『성학집요(聖學輯要)』에서도 기질을 교정하는 항목을 둘 정도로 기질변화의 노력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4. 맺음말

16세기 조선유학에서 사화를 거쳐 사림파가 관학파 대신에 정치의 전면에 부상한 과정은 각고의 노력이 뒤따랐다. 마치 멀리 뛰기 위해 몸을 움츠린 개구리처럼 그들의 비상은 실패의 원인을 학문적 이론탐구를 통해 승화시킨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배움이 자신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을 지향하는 삶이었다. 그러나 정치운영의 경험이 미숙했던 사림들 내부의 의견충돌은 쉽게 좁혀지지 않는 갈등의 시기인 당쟁으로 이어졌다. 16세기 조선유학을 대표하는 한 학자였던 율곡은 관료형 학자의 전형으로서 保合調劑의 기치를 내걸었으며, 교육의 목적을 공유하며 교육행정의 체계화 노

력도 그러한 일환에서 나온 것이었다. 성리학자로서 율곡은 관학과 사학을 대립적 시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관학과 사학을 관통하는 핵심은 '道學'이었고, 그 방법은 도덕적 마음을 기반으로 제도적 보완을 통한 實效에 힘쓰는 과정이라 진단한다.

율곡은 修己治人을 바탕으로 자발적 도덕심의 사회적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유학자의 책무임을 망각하지 않았다. 특히 현실상황에 적극 참여하여 經世濟民의 관심과 능력의 배양에서 실천의 힘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있어 '道學'정신은 자기성찰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실천을 추진하는 원동력이었다. 한때 율곡은 도학이 僞學으로 내몰렸지만 결국 복권되어 사회문화의 중심이 되었던 주자학처럼, 조선사회에도 도학의 정신이 충만되기를 갈망했다. 도덕적 자기성찰과 이에 기반한 사회적 실천노력에서 율곡이 특별히 주목한 것은 후자처럼 실천의 측면이었다. 또한 그는 綱常倫理와 같은 변하지 않을 도덕성이 우리의 지향점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한 실천 노력에서 유자의 참모습[眞儒]을 찾았다.

율곡은 이미 도덕정치를 지향하는 士林이 정치운영의 주체세력이 되었기에 학교교육에서 관학이나 사학 사이의 특별한 구분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중앙정부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공교육으로서의 관학의 활성화는 훌륭한 인재배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양질의 공교육은 스승으로서 訓導者의 역할이 중요했으므로 그들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키고 자부심을 키워줄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율곡이 제시한 『학교모범』에서는 학문과 덕행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자들을 합리적 절차에 따라 교관으로 채용하며, 학생들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반면에 사원 등 사학에서의 교육은 주로 일상에서의 도덕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공부법에 치중한다. 덕성을 높이고 학문을 연마하기 위해 목표를 원대하게 갖고 독실한 마음으로 매진하도록 촉구했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자세가 實學이요, 과거시험 역시 그러한 공부과정의 일부일 따름이라고 보았다.

도덕적 인격완성은 그에 걸맞는 현실적인 사회제도적 시스템과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는 율곡의 관점은 당시에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향한 율곡의 실천 자세는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해준다. 우리는 과연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참고자료>

『栗谷全書』
『朱子大全』
Peter K. Bol著, 김영민옮김,『역사 속의 성리학』, 예문서원, 2010,
김경호,「학교모범에 나타난 율곡의 교육사상: 교육이념과 내용을 중심으로」,『율곡사상연구』6집, 율곡학회, 2003.
리기용,「율곡의 도학과 사회개혁」(『율곡사상연구』21집, 율곡학회, 2010.
朴忠錫,『韓國政治思想史』, 三英社, 1982, pp44～45.
이동준,「율곡의 사회사상과 도학정신」,『율곡사상연구』19집, 율곡학회, 2009.
이이 저, 안외순 옮김,『동호문답』, 책세상, 2013
田浩 著, 姜長蘇 譯,『功利主義儒家: 陳亮對朱熹的挑戰』, 江蘇人民出版社, 2012.
정호훈,「16세기말 율곡 이이의 교육론」,『한국사상사학』25집, 한국사상사학회, 2005.